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군산시, 4일부터 취약계층 계좌입금, 일반세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군산시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정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군산지역 지급대상은 총 11만 8천여 가구이며, 약 74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대당 지급액수는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여부 및 가구구성 현황은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URL: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5부제 일정에 맞춰 확인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취약계층 2만여 세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지난 4일 입금됐으며, 일부 누락자는 8일 입금 될 예정이다. 이외 일반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및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수단별로 신청·지급 절차가 달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2일 내 입금된다.

현금지급 및 신용·체크카드 신청자 이외 대상자는 선불카드로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일 내 카드에 입금 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가능지역은 지급수단별로 신용·체크카드 전북도내, 선불카드는 군산시로 제한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를 원하면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만 지원금으로 받으면 된다. 기부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동욱 부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 TF팀 및 콜센터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간편한 신용·체크 카드 신청 방법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군산시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해양수산부 주요부서 국·과장을 만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수부 김양수 차관 면담을 통해 중점사업 지원에 대한 건의를 이어 갔다.

군산시, 국가예산 활동 강행

강임준 시장 부처 방문 본격

군산시가 5월을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부처 방문활동에 나선다.

군산시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세종정부청사 등 중앙부처 대면 건의 활동이 쉽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을 기점으로 부처 건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해양수산부 주요부서 국·과장을 만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수부 김양수 차관 면담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중점사업 지원에 대한 건의를 이어 갔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450억) ▲군산~어청도 노후여객선 대체건조(총사업비 증액 40억→60억)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441억)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선정 건의 등이다.

강 시장은 해수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군산시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지난해 3월 MOU를 체결해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한 실적과,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추진해 5월 말이면 용역이 완료되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내년도 사업시행시 2024년까지 ▲수산식품 산학연구(R&D)센터 ▲수출·유통 협력지원센터 ▲임대형가공공장 및 공용저온창고 ▲해수 가공용 수공급 시설 등이 조성되어 서해중부권의 수산업 수출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클러스터와 바로 인접한 새만금장기임대용지 3.5만평에 현재까지 약15개의 수산식품분야 민간투자기업이 입주 협약을 완료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21년도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야 협약 기업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져 고용·산업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예산확보 행정력 집중

정헌율 시장 정부부처 잇단 방문, 관심 · 지원 요청

익산시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정헌율 시장은 6일 정부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과의 면담에서는 △보석박물관 전시실 미디어아트 체험존 조성과 △익산시 빛의 구장 조성사업의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를 차례로 방문해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호남권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 △남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익산 폐석산 복구지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1일에는 지역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국가예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중앙부처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함에 따라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재정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며 "한국형 뉴딜사업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5월 말 정부 부처안에 지역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무자격 체류외국인 코로나19 검사확대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감소하며 감염병 확산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에 또 다른 사각 지대를 찾아 세심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방침으로 비용 부담과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방역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처우가 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코로나19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무료 검사, 확진 시 치료비 무료 적용,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이 진료시 출입국관리사무소등에 통보 의무 면제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시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배포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노동자의 집, 이슬람 문화센터 등도 동참하여 농·축산 생산, 제조 및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홍보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진 공모

군산시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주요 임원진을 공개모집한다.

군산시는 市 최초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사전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 등 주요 임원진을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당초보다 모집기한을 2주 연장했으며 공개모집 인원은 대표이사 1명과 비상임 이사, 감사 각 2명 등 총 5명이다.

지원 자격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능력을 갖춘 자 등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대표이사는 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의 보수가 보장되는 상근직이고, 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총괄관리 직무를 담당한다. 이사는 이사회 참석과 심의 의결, 감사는 재산의 상황, 결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무보수 비상근직이다. 임원 공개모집의 자세한 공고내용 및 지원서류 등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의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다중이용시설 순차 개방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먼저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웅포 캠핑장, 근대역사관, 가람문학관, 교도소세트장, 아트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집·청소년문화센터 및 상담복지센터 등은 6일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보석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등 관광 시설은 관람만 가능하며 별도 행사는 열지 않고, 국립익산박물관의 경우 사전 관람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8일부터는 시립도서관(모현, 마동, 영등, 부송, 황등)이 모두 개관하나 도서 대출만 가능하며 열람실은 제외된다. 국가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은 11일 이후 시설만 개방하고 프로그램은 지속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협의해 25일부터 개관을 결정하고 여성회관 또한 25일 이후 운영을 시작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상의 시민화합 교례회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양희준)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대해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상공인, 익산시민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로 '익산발전을 위한 시민화합 교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요소와 야기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익산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한병도 당선인과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상공인 및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행사 참석 및 진행과 관련된 문의는 익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iksanci.korcham.net)이나 기획조정부(857-3535~7)로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